소감문

심리학과

201421872 홍선표

저는 포스터를 통해 사회 통합 캠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활동비 무료에 대구에서 진행 하는 캠프가 있다며 사회 통합 캠프 포스터를 보여주었을 때 날짜도 시험기간 2주 전이었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많이 신청하지 않을 꺼 같아 경쟁률이 낮을 거 같았습니다. 저는 휴학생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구애 받지 않아 부담없이 이번 기회에 대구에 가서 놀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날짜가 변경되면서 동기 엠티와 겹치게 되었고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한참을 고민했었습니다. 동기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기회였기 때문에 동기 엠티도 가고싶었지만 이 캠프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서를 썼던 것과 캠프에서 주는 여러 메리트도 포기하기엔 아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회 통합 캠프를 선택하게 되었고 저는 이 선택을 제 인생 최고의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캠프 초반, 새벽에 졸린 눈을 부비면서 서울역에서 버스를 탈 때 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있었지만 그 관심은 여타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고 통일이라는 것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제 머리속에서 까맣게 잊혀져 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캠프를 진행하면서 점점 생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북한사람은 그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삼부자를 찬양하는 우상화 교육에 세뇌 당해 아무 생각도 못하고 복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끔씩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는 한국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이나 각종 정권에서 일어난 독재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 그리고 몇 년 전에 다시 일어났던 촛불혁명과 같은 것들을 보았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죽음을 불사르고서라도 똘똘 뭉쳐서 부당함에 항거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면 분명 김일성 삼부자의 독재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왜 그들은 그런 노력 없이 순응하고 찬양하면서만 살아갈까, 왜 저항하지 않고 탈북만 할까 궁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있었던 북한은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좀비처럼 김일성만을 찬양하며 죽어있던 나라가 아니라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에 피는 새싹처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화 감상시간에 영화를 통해 알게 되었던 장마당 세대는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북한의 3세대인 장마당세대는 장마당이라는 시장을 열면서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북한을 조금씩 자유 경제 국가로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교육에서는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캠프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며 내 생각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실제 프로그램을 짜보는 활동은 새터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방인에 대한 차별 모두를 수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어려웠지만 그만큼 발표 후에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북한 관련 책들을 한권이라도 더 읽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새터민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통일 연구소도 대학생들이 새터민 뿐만 아니라 북한과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통합 캠프를 더욱더 발전시켜 이와 같은 노력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뜻 깊은 캠프였고 기회가 된다면 2기 캠프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